

진로 고민 상담소 : 공기업편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다. 생각할수록 결정에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학보사가 고민에 빠진 학우들을 위해 시리즈를 기획했다. 스포츠계에 종사하고 있는 동문을 찾아가 취업 정보를 얻어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만난 이들은 ‘공기업’ 종사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시체육회에 재직 중인 동문을 만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보고자 한다.

원지호 수습기자 jho305406@naver.com

**Q.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학우들
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정호 (이하 고):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6학번 졸업생 고정호입니다.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인재육성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손민지 (이하 손): 저는 노인체육복지학과 09학번 졸업생 손민지입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 북부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요양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파주시체육회 김물결 (이하 김): 저는 노인체육복지학과 13학번 졸업생 김물결입니다. 현재 파주시체육회 체육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해당 공단(기업)은 무슨 일을 하는 곳
인가요?**

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회사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우리나라 체육계 재정 자원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일에 저희 기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이나 취약계층 바우처 사업, 스포츠 인재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기준이 크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부서로는 행정 파트인 행정지원팀, 보험급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강보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합니다. 또 금연 지원 사업, 당뇨 관리와 같은 다양한 건강 관련 사업도 진행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담당 부서는 제가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이곳은 어르신들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하고, 각 지역의 방문요양센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파주시체육회는 파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체육 관련 행사나 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파주가 현재 인구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도시인만큼 그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Q. 근무하시는 부서의 근무환경과 장단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고: 저는 사무(체육) 직렬이라서 외근할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와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세종시 쪽으로 가끔 출장을 다니기는 합니다. 장점은 올림픽공원 내에 회사가 위치해서 학교 졸업 후 적응하기 수월했습니다. 단점으로는 원래 공단이 위치하던 올림픽회관이 리모델링 중이라 부서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가야 할 때 10분 정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하긴 합니다.

손: 부서 특성상 대부분 업무가 출장이 많



고정호 동문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인재육성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 체대생들의 입장에서 체력적으로 앞선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에 적응을 마치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받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잦은 출장으로 인해 본인 차량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고,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김: 파주라는 지역사회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명감이 생깁니다. 또 체육 전공자로서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체육 행사를 기획한다는 게 스스로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요. 대신 생활 체육 행사는 대부분 주말에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주말 출근 혹은 출장이 많은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학 생활 중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됐
던 활동이 있다면요?**

고: 기자 활동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학보사 활동을 3년간 했고 교지 편집장,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기자단도 했습니다. 당시에 언론인을 꿈꾸며 기자로 활동했던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자의 신분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이를 깔끔한 글로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문 능력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손: 저는 학과 학생회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회도 어떻게 보면 작은 조직이잖아요. 사회로 나가서 조직에 속했을 때 타인과 협력하는 방법을 학생회에서 미리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당시 기획부 소속이었는데 어르신 체육대회와 같은 학과 이벤트를 진행하며 서로 소통하는 방법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로와 같은 고민이 생길 때 선후배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 저는 4학년 때 학과 부학생회장을 맡았었어요. 이외에도 동아리 같은 교내활동을 많이 하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취업을 준비할 때 힘든 일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취업 후에도 다양한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때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곤 합니다.

“일단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손민지 동문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Q. 입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부터 스포츠 공기업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로가 바뀐다면 이런 기본적인 자격증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무원으로 군 복무하는 동안 컴퓨터활용능력, 토익, 한국어 세 가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턴으로 합격하여 생활하면서 최우수 인턴으로 뽑혔어요. 덕분에 서류전형은 면제받을 수 있고, 필기전형에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턴을 마치고 필기(NCS:직무능력검사, 전공) 공부할 시간이 두 달 남짓이라 길지 않았는데, 이때 받았던 가산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처음 알았을 당시에는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이라 일하면서 퇴근 후에 시간을 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지원 단계는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 3가지로 나뉩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직업교육, 학교 교육(학점), 경력 기술서, 경험 기술서가 있어요. 공단의

NCS 과목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은 같은 공단을 준비하는 분들과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현장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일하는 요양직의 경우 경력직이 많아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험이 면접 당시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김: 파주시체육회는 다른 공기업 및 공단과 달리 지방체육회다 보니 해당 지역 거주자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저도 일반 회사들처럼 서류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체육회의 특성상 체육 전공자를 우대하고 운전면허, 체육 관련 업무 경험도 매우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체육대학교’라는 아웃풋이 기관에 좋은 인상을 심어줬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Q. 준비 혹은 지원과정에서 특별히 강조
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고: ‘자기 객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

이 지금껏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또 자격증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공단에서 채용 시 요구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용 원서 접수 전까지 시간을 투자해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 인생의 로드맵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손: 저는 서류전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가장 통과하기 힘들고 그 부분에서 변별력을 갖춰야 해요. 그래서 학점 관리가 중요하고, 한국사나 컴퓨터활용능력 1급처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행정직, 요양직, 건강직에 따라 필수 보유 자격증이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저도 어느 정도는 감피를 잡아놓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고 있다면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목표설정 과정을 제쳐두고 남들을 따라 하다 보면 금방 지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생기면 그에 맞는 필요한 게 보일 테니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부적인 목표가 달라져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Q. 평소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강점이 있
다면 무엇이며, 그것이 입사 과정에서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고: 저는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입사 준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꿈을 가지고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는 계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NCS와 전공 시험을 준비할 때도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인 것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작용했습니다.

손: 저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6번을 지원했고, 면접 전형에서만 두 번을 탈락했습니다. 당시에는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니 “내가 공단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

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또 지원과정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고요. 하지만 끈기 있게 지원했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기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 저는 평소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뭐든 해보자’, ‘어떻게든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긴장과 걱정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의 능률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만약 그 결과가 좋지 못해도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맞이했을 때 경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항상 느낍니다.

**Q. 마지막으로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고: 대외활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신 활동을 고르실 때 애매한 활동을 여러 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활동 하나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턴 활동도 진로에 맞춰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본인의 전공을 살리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봉과 같은 현실적 부분은 교수님, 조교 선생님, 선배들과 상담할 수 있고요. 또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만약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동문 MT와 같은 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 2학년 때는 수업 참석을 기본적으로 하되 학생회나 동아리 같은 다양한 학교생활을 접하면서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진로 고민이 생겼을 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 제 컴퓨터 모니터 밑에는 ‘언젠가는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라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옥죄는 것보다는 돌보면서 준비했다면 좋겠어요. 무엇을 좋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저학년 학우들은 무조건 많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취업과 관련이 없어도 좋아요. 여행도 좋고 연애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젠간 본인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자생각]

동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공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대체로 다양한 경험을 추천하고, 이후에는 확실한 로드맵을 구축해 나아가라는 의견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리즈를 기획할 예정이니 학우분들도 많은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



김물결 동문이 베트남 여행 중 환하게 웃고 있다.